

세네갈에서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에도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1. 그랑요프감리교회

12월 첫 주에는 이곳 세네갈 작물인 아라실(땅콩)과 꾸스꾸스의 수확에 맞추어 추수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이들의 감사 속에 드러진 예배는 한국과 시기가 같지는 않지만 감사예배를 드리는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단의 장식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서 생산되는 과일과 열매로 장식을 하였고 헌물도 생각지 않은 복사용지와 설탕 등이 있었지만 주보를 만드는 등 필요한데 사용하였습니다.

학교의 방학과 함께 전교사와 교회 교인들이 함께 성경통독을 하였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성경통독의 주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요한복음 6:68-69)로

구약 시편 1편에서 시작해서 신약을 연대순으로 읽으면서 묵상하였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자랑이며,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구원의 보배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전야예배는 모든 가정이 각각 찬양을 준비하여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모든 가정, 각각의 교인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크리스마스축하예배는 세네갈에서는 24일 전야예배로 대신하고 있지만 그랑요프교회와 뎀교회는 크리스마스예배를 드렸습니다. 크리스마스예배를 드리지 않는 타 교회 교인들이 참석을 하여 은혜가운데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축하하기 위해 가장 아름답게 화장도 하고 가장 좋은 옷으로 꾸미고 온 교인들이 자신의 모습을 사진에 담은

모습들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역시 주님 앞에서 한해를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 마음들을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2015년 그랑요프교회의 표어는 “쉬지말고 기도하라(데살로니가전서5:18)”로 정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세네갈의 복음화는 쉽게 이루어 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외국의 선교단체들이 선교활동을 중단함으로 교회의 문이 닫히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부족들이 존재하는데 말입니다. 세네갈교회들도 재정지원이 약해지면 서로 합치고 문을 닫고 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랑요프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세네갈 선교를 위해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통해 범사에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2. 존 웨슬리 기독교

여기 세네갈학제는 3학기제로 1학기가 끝나고 크리스마스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학교는 한 학기가 끝나면 부모님들이 학교로 찾아와 한 학기 동안 자녀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하고 성적표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한 부모의 관심은 어느 나라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방학식날에는 아브호 드 노엘이라는 크리스마스축제를 하였습니다.

각 학급에서 준비한 모든 프로그램들은 늦은 저녁까지 계속되었고 부모님들과 함께 즐겁고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각각 선물을 마련하여 선물하였습니다.

이 선물은 사마리탄 선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각 교회 교인들이 동참하여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위해 상자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넣은 것으로 내용물이 약 1만세파의 가격이지만 약간의 운송비 및 필요한 경비인 개당 300세파를 주고 사는 것입니다.

12월초에 시작한 학교 앞 인도에 보도블록을 놓는 일은 학교 방학과 함께 종결 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이곳에서 정원사로 일하는 오마가 다른 곳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무료로 얻어서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블록이 모자라 설치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학교의 재정으로 다시 연결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학생들의 안전과 통학로 확보를 위해 차도와의 경계선에 보호대도 설치 할 예정입니다.

이 일을 위해 시청의 시장을 방문하였고 흔쾌히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시장님의 3자녀도 우리 학교에 다니고 있다 하시며 학교에 대해 만족해하셨습니다.

처음 부모를 떠나 유치원에 적응하는 아이들이 그렇듯이 시장의 막내아들이 유치원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누나를 찾으며 매일 울고 있어서 이광용선교사가 관심을 갖고 많이 보듬어 주었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알고 보니 시장아들이었습니다.

학교를 돌아보는 시간에 선생님이 이선교사 방으로 와서 이선교사가 누구인지를 질문했는데 그 친구가 제일 먼저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었다고 합니다.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그가 사랑 받고 있다는 것을 아나 봅니다. 이제는 잘 적응해서 유치원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의 모습이 정리되어져 가서 감사하고 학교 안에서 얻는 평안도 늘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 나라의 미래임을 늘 생각합니다. 잘 키워진 미래의 지도자...

일부 사람들은 모슬렘 아이들만 잘 키워서 뭐할거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 하지 않습니다. 모슬렘에 강한 부모들이라면 아무리 학교가 좋아도 이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니까요.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미래를 준비시키는 아이들이라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에 헌신할 귀한 이 땅의 지도자로서 세워지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뎀감리교회

뎀감리교회가 세워지고 처음 맞이하는 크리스마스는 모두의 관심사였습니다.

평일에 저희가 크리스마스트리를 하러 간다는 소식을 듣고 학교를 결석하고 기다리고 있던 아이들이 있었으니 말입니다.

덕분에 모든 교인(모든 교인이라 하여도 9명입니다)들과 몇 명의 아이들과 함께 모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크리스마스트리 장식을 하였고 사진을 찍고 음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크리스마스예배는 그랑요프교회의 예배를 마친 후 드려야 했으므로 오후 5시에 드렸지만 시간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찬송을 알지 못하는 이곳의 학생들에게 3번째 주일에 예배를 드린 후 가르쳐 주었는데 이날 함께 부른 크리스마스 찬송은 모두의 마음속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전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스스로 모여 만들어 놓은 장식과 종이에 오려 붙인 기쁜 성탄(Joyeux Noel)은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었고 예배 후에 나누는 사마리탄 선물은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상자를 풀어 들어있던 선물을 가지고 서로 자랑하던 모습들이 눈에 선합니다. 늦은 저녁이었지만 지난 번 방문 했던 병자-어거스틴(지금은 고인이 됨)-의 가정을 다시 들러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감사했습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선물도 나누어 주고 꼭 교회에 나오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길 기도합니다. 맴마을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로 가득했으면 합니다. 복음이 맴마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첫 세례자가 나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그 외

- 1) 그랑요프시청과 교육청을 방문하여 학사일정과 학교에 필요한 요구사항들을 의논하였습니다.
- 2) 청년 절제회 조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여 주십시오.

3) 전화연락

전화: 221 77 574 12 24 이광용

221 77 370 17 80 김양진

070-4642-0762(한국 070전화로 가능)

카톡: 010-6279-8633 이광용

010-4002-8633 김양진

주소: TF6802 Face Hamo, Scat Urbam Grand-Yoff, BP13121 Dakar SENEGAL

Ecole Protestante John wesley

항상 기도와 물질, 번역으로 함께 동역해 주시는 분들께 따스한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광용/ 김양진선교사 드림

기도제목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선교는 기도입니다.

(1) 그랑요프 감리교회

1. 영적지도자 선발과 교육, 영적훈련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주시도록
2. 세네갈의 미 전도부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도록
3. 세네갈 각 부족의 복음전파를 위한 전방선교의 중심센터가 되도록
4. 세네갈 최초의 감리교회입니다. 앞으로 역사성을 간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 지붕개량과 휴게소 지붕보수를 위해서

(2) 존웨슬리기독교학교

1. 2014-2015년 새로운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 학업에 임하도록
2.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은 좋은 선생님들을 통해 그 복음과 사랑이 아이들에게 흘러가도록
3. 학생들에게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미래에 자기 부족과 세네갈의 복음화를 위해 온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섬길 복음의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4. 깨끗한 환경, 좋은 환경에서 즐겁게 공부하고 아름다운 추억들이 오래 기억에 남도록

(3) 뎀감리교회

1. 뎀교회 신앙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도록
2. 예수그리스도를 마음에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첫 세례자가 나오도록
3. 담장과 제단의 타일공사 등 성전보수를 위해서(1-3월 예정)
4.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영적인 부흥이 이루어지도록, 영적 지도자 선발훈련을 위해서
특히 장민양(고등학교3년)이 2014-2015년도 대학준비시험인 박칼로레아를 합격해서 ITS 신학교(정부인가)에 입학할 수 있도록,
베르나도가 성품 등 참 좋은 청년인데 나이가 20살입니다. 중학교 2년 학업에 최선을 다하여 앞으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4) 선교사 가족

1. 선교사와 선교사 가정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2. 언어훈련에 필요한 지혜와 필요를 공급해 주시도록
3. 한국에 두고 온 두 자녀 사무엘, 안나의 학업, 건강, 안전을 위해